

시대가 묻는다. 그대라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문

김태완 지음

세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먼저 하자면, 역대 일부 대통령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법이다.

한 대통령은 병원 앞에 탱크를 배치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 환자는 무조건 잡아들인다. 다른 대통령은 메르스 대처 방법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다. 새벽 비행기로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대통령도 있고, 해외 순방 후 가장 안전한 병원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려는 국가 수반도 있다. 순전히 유머지만 우리 국민에게 대다수 대통령은 이런 모습이었다.



올바른 통치자의 조건을 옛 시험지에서 찾아보는 광주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김태완 소장의 저서 '책문(策問)'이 다시 나왔다. 지난 2004년에 출간됐지만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진 조유의 '창조적 재앙' 앞에 '책문'의 개정판은 남다른게 다가온다. 또 '문화다방 불발' 김보경 대표의 '남독은 입문학이다' 등 보석 같은 책을 펴내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의 지역 출판사 책이라 더욱 반갑다.

책문은 일종의 조선시대 고급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제된 시험과 답안의 한 유형이다. 대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합격자 33명의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었는데 왕과 젊은 인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이 때문에 책문은 시대의 물음이며 시대가 출제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 화두를 묻고, 젊은 인재들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조언했던 제도였다.

책은 왕의 물음(책문)과 선비들의 대답(대책), 역자의 해설(책문 속으로)로 구성됐다.

이 책에는 조광조, 심상소, 신숙주, 권벌 등 글 13편을 가려 뽑았다. 1447년 세종 29

년,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화맹은 이렇게 답했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임금과 뜻이 통하지 않는 인재가 서로 만나는 일은 마치 맹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것과 같다.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면,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숨으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 탓에 조용할 날이 없는 현 정치권에서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1507년 중종 2년 문과 권벌이 제출한 책문을 살펴보면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의 중요성도 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권벌은 이렇게 답한다.

“쉬울 때 어려움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서 시작해 큰일을 이뤄야 한다. 시작할 때는 마칠 때를 생각하고, 시작을 잘했으면

옛 과거 시험에는 시대의 물음이 담겨 있다. 사진은 광주시 동구 율림동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나도 과거시험 도전'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이 무등산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옛 과거 시험에는 시대의 물음이 담겨 있다. 사진은 광주시 동구 율림동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나도 과거시험 도전'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이 무등산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와 공약으로 시작했다가 예산 타령만 하는 작금의 정치판에 던지는 경고와도 같은 답변이다.

저자 김태완은 숭실대학교에서 학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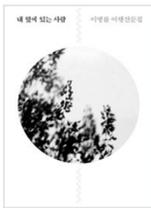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은 책으로 '윤극 문답', '경연, 왕의 공부', '시냇가로 물러나 사는 즐거움' 등이 있다.

<현자의마음·2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 이야기 필름 카메라로 포착한 풍경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병률 지음



어라?” 안부를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놀았다. 시인이 떠나는 날 ‘섬이 가라앉을 듯

올어대던’ 소년과의 이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소년을 다시 만난 사연이다.

‘달빛이 못다 한 마음을 비추네’는 한 노인에게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북 문경의 산길에서 사고를 치고 나오던 어른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몇장 찍어드리고..

이병률의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이번 책에 실린 사진 중 절반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다. 사진에서도 작가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진다. 또한 많은 이야기와 표정이 담겨 있어 한참을 들여다 보게 만든다.

<달·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딱 10년전 출간된 이병률 시인의 '글림'은 여행산문집의 지존이다. 지금까지 80만부 이상 팔린 '글림'은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저마다 길 위로 나서고 싶게 만들었다. 이어 지난 2012년 출간된 '바람이 본다 당신이 좋다' 역시 특유의 감성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신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다. 무엇보다 전작들이 세계 100여개국을 여행하며 써내려간 글과 풍광을 담은 것이라면 이번 책은 국내 방방곡곡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곳의 풍경을 영글로 포착했다.

따로 목차가 없어 처음 책을 집었을 때 휘리릭 넘겨보다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 눈에 띄어 먼저 읽은 게 '왜 섬이 좋으냐고 묻는다'이다.

조여름 흑산도에서 만난 소년은 매일 시인을 찾아와 "글 많이 쓰셨

새로 나온 책

▲명곡의 재발견=1990년대 팝 칼럼니스트로 왕성히 활약했던 이무영이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돼야 할 곡들을 선곡해 소개한다. 롤링 스톤즈, 마이클 잭슨, 비틀즈, 비치 보이스, 핑크 플로이드, 닐 다이아몬드 등 당대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곡을 쓰게 된 계기와 영감뿐 아니라 가사 전문의 번역문과 해설을 달아 곡의 이해를 도왔다. <스코어·2만2000원>

▲엄마의 감정수업=육아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심리 치료사인 나오미 스태들런이 운영하는 '마더즈 토크'이라는 엄마들을 위한 토론회 모임에서 나왔던 많은 엄마들의 사례를 통해 엄마와 아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확실적인 연구 결과에 치중하느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육아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엄마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육아 문제에 얽힌 여러



심리 문제를 풀어낸다. <유아이북스·1만4800원>

▲여성 혐오가 어땠다? = 최근 인터넷과 방송을 매개로 촉발된 혐오 전쟁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할론쟁,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 안에 잠재된 혐오, 사회 지배적인 혐오를 내재한 자기혐오 등 다양한 혐오의 얼굴들을 드러낸다. '여성 혐오'를 입구 삼아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혐오의 대상은 누구인지, 혐오라는 강렬한 감정의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혐오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답한다. <현실문화·1만4000원>



▲논리학의 역사 1, 2 = 뛰어난 영국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윌리엄 윌리엄스 그의 아내 마샤 윌리엄스가 13세에 걸쳐 공저한 '논리학의 역사'는 1963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반세기 동안 논리학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온 책이다. 논리학자들의 필독서인 이 책이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간되기까지도 13여 년이 걸렸다. 12개의 장으로 이뤄진 책은 고대 기하학부터 현대 논리학까지 2500여 년에 걸친 논리학사가 잘 정리돼 있다. <한길사·각 권 3만2000원, 3만원>

▲목자·양주, 로봇이 되다 = 중국 춘추 전국시대 철학자인 목자와 양주의 철학을

SF 소설로 엮었다. 소설의 배경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한 한국이 새로운 생태 에너지를 개발해 세계의 중심에 선 미래 사회다. 두 명의 과학자 강원우와 김다래는 각각 사랑과 평화를 외친 이타주의자 목자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외친 이기주의자 양주의 사상을 코딩한 제3세대 로봇 블레이크와 레드를 만든다. 책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탐·1만원>

▲정치의 무늬 = 논객 고종석의 정치적·사회적 사유의 흔적을 엄선해 담았다. 고종석은 그의 시사 에세이들에서 좌나 우의 경직된 생각들을 유연히 넘나들며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구현해왔다. 이번 선집 '정치의 무늬'에는 고종석에서 현재까지 있고 두고두고 읽힐 만한 시사 에세이 94편을 가려 빠곡히 수록했다. 온갖 개념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적 수사를 해치고,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안을 바라볼지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려준다. <알마·2만2000원>

어린이 책

▲새 도감 =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560여 종에 이르는 새 가운데 122종을 뽑아 세밀화로 그렸다. 먹이를 잡고 새끼를 치며 살아가는 모습 같은 생태 그림을 비롯해, 깃털, 감각 기관 구조를 그린 설명 그림까지 100점 남짓 곁들여 보다 생생한 모습을 담았다. 우리 자연과 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리·8만원>



▲첫사랑 정탈기 =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은 세라는 열세 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첫사랑, 명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집중



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조율된 시선은 친구들의 천진한 속마음과 어른들의 비겁함까지 들추어낸다. 작가 천효정은 유쾌한 에피소드의 연쇄를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을 몽클하게 그려 냈다. <문학동네·1만15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피터는 어느 날 꿈에서 본 나무를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어한다. 소년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이야기. 영국 그림책 작가 버나트 외츠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린 소년의 추억을 한 편의 수채화 같은 맑고 고운 그림에 담았다. <노란상상·1만1000원>

▲공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 2015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라기치 상 픽션 수상작. 사자의 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반복되는 운율로 재미있게 보여준다. 사자의 방이라는 독특한 공간 설정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느끼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준다. <정글짐북스·1만2000원>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해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침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전치 등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